역사의 격동을 헤쳐온 신세대 비평가들의 자기모색

『비평작업』『청맥』『한양』의 순수 · 참여 논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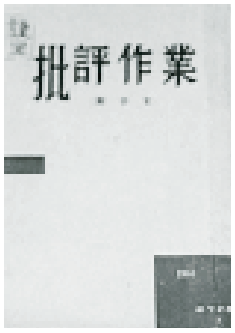
허 윤 회 | 광운대 강사

순수 · 참여 논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1960년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순수 · 참여 논쟁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에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 첫번째가 사회참여 논쟁이며, 두번째는 <창조적 자아와 '앙가제' 논쟁>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어령 칼럼에 대한 김수영의 <지식인의 사회참여>라는 비판을 통해 이루어진 '시의 불온성' 논쟁이 그것이다.

우리 문학사의 순수 · 참여 논쟁의 출발

해방 이후 한국문학 혹은 비평에서의 특징적 양상을 든다면 우선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의 대립과 이 양자의 조정을 거론하게 된다. 문학에서의 두 가지 기능, 이를테면 유희적 기능과 교훈적 기능이라던가 상상적 기능과 인식적 기능으로 나뉘어지는, 본원적인 구분을 염두해 두지 않더라도 우리에게 순수문학과 참여문학의 구분은 매우 익숙한 문학의 안내자 역할을 해왔으며, 이제는 그만 떠나보내고 싶은 우리 문학의 자화상이며 상처로 얼룩진 유산이다.

순수 · 참여 논쟁은 일제 강점기의 1930년대 후반 김동리 · 유진오의 논쟁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한국전쟁을 치르고 사회가 제 기능을 발휘해 나가는 과정에서 신진 평론가들에 의해 촉발된다. 우선 이어령은 「저항의 문학」 등을 통해서 기성세대의 문인들을 비판한다. 이때 '저항'이란 참여의 다른 별칭으로 받아들여졌다. 1955년 무렵에는 이밖에도 이철범 최일수 등의 비평가들을 통해서 민족문학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비평작업』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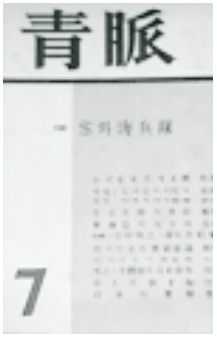
그러다가 순수 · 참여 논쟁이 본격화되는 시기는 1960년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순수 · 참여 논쟁에 대한 연구는 이 시기에 집중되어 있으며, 대개 다음의 논쟁을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다. 첫번째는 1963년과 1964년에 걸쳐 김우종 · 김병걸과 이형기 사이에서 벌어진 사회참여 논쟁이며, 두번째는 1967년 김붕구의 <작가와 사회>라는 글을 중심으로 선우휘 임중빈 이호철 김현 임헌영 등이 벌인 <창조적 자아와 '앙가제' 논쟁>이다. 그리고 세번째는 이어령의 '에비'가 지배하는 문화>라는 칼럼에 대한 김수영의 <지식인의 사회참여>라는 비판을 통해 이루어진 1968년의 '시의 불온성' 논쟁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위의 세 논쟁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옆으로 위로 살펴보아도 어딘가 미진한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김우종과 김병걸의 생경하고 흥분된 어조의 표현에 이형기의 심각한 반응은 무엇이며, 4 · 19 이후 여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1967년에 가서 참여문학의 무의미를 논한 김붕구의 <작가와 사회>라는 글에 대하여 여러 문인이 반응한 것은 또 무엇인가? 이때 비평가들이의 반응이란 선생님이 낸 시험문제에 학생들이 쓴 답안지들처럼 비쳐진다. 그리고 '저항의 문학'을 제창한 이어령이 순수의 옹호자로 돌변하면서 김수영과 나눈 설전은 어떤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지 난감하다. 김수영이 말하고자 한 것은 무엇일까? 그의 글은 읽을 때마다 알 듯 모를 듯하다. 단 순수와 참여 어느 한쪽의 방향으로 본다면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정리된 1960년대 순수 · 참여 논쟁의 인상은 철옹성 같은 순수문학 방어와 참여문학의 산발적 비판으로 비쳐진다. 이 글에서는 1960년대의 신세대 비평가들의 활동을 살펴보면서 위에서 제기한 몇 가지의 의문점들을 나름대로 잇고 깁고자 한다.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간행물은 『비평작업』『청맥』『한양』등이다.

신세대 비평가의 역사의식과 참여문학

1) 학생 비평가들의 『비평작업』

『비평작업』은 '정오평단'(正午評團)의 문학평론 동인지이다. 회원으로는 이광훈 임중빈 조동일 주섭일 최홍규 등이 참가하고 있다. 『비평작업』은 신춘호(新春號) 1권이 1963년 1월 5일 인쇄, 1월 10일 발행되었다. 이 젊은 동인지는 한 권으로 그 수명을 다했지만, 임중빈 조동일의 이름은 지금 들어도 낯설지 않다. 이때 임중빈은 성균관대 학생이었고, 조동일은 서울대 학생이었다.



『청맥』 표지

『비평작업』의 모태는 4 · 19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비평작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평단소송'이라는 난이다. 여기에서 백철의 전통론, 이어령의 순수지향, 조연현을 중심으로 한 기성 문단에 대한 맹비판이 이루어진다.

이른바 학생 비평가들의 첫 번째 동인지라고 할 수 있다. 정오평단은 1960년대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하는데, 4 · 19가 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역사적 사건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비평작업』의 모태는 4 · 19에 있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4 · 19와 5 · 16을 거치는 과정에서 학생비평가들의 문학적 활로는 1963년에 이르러 본격적으로 개시된 것이다. <새 시대의 가치창조를 위하여>라는 권두선언에서 그들은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초토작전 끝에 장속곡을 목놓아 합창한다. 그것은 찾는 것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앞을 내다보는 젊은 인생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부단한 비평과 헌신적 작업 속에 자아발견의 길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우리는 광란 이전의 준엄한 <이반>인 동시에 승복을 걸치지 않은 <도니쌍 신부> 초상임을 선언한다"라고 적고 있다. '광란 이전의 준엄한 <이반>인 동시에 승복을 걸치지 않은 <도니쌍 신부>'의 두 초상은 그들의 두 꼭지점이며, 그들 정오평단의 '젊은 인생'이 가고자 하는 한 지향이기도 했다. 물론 이것은 전시대의 인생파에 대한 차별의식에서 비롯되었다. 한 호로 단명한 동인지가 예사롭지 않은 것은 이 때문이다.

『비평작업』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평단소송'이라는 난이다. 여기에서 백철의 전통론, 이어령의 순수지향, 조연현을 중심으로 한 기성 문단에 대한 맹비판이 이루어진다. 이 세 편의 글은 익명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때문에 "이젠 펜을 꺾으시오""그럴 자신쯤 없대서야 일찌거니 자진폐간을 서두르는게 현명책일지 모른다"등의 감정적인 필치가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혈기왕성한 학생비평가의 첫출발은 이렇듯 거칠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신감과 함께 자신을 세우지 않으면 사라질 운명에 처할 수도 있다는 절박함이 이러한 인상비평을 낳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아무튼 전 시대의 비평가들에 대한 비판은 소설가들에게도 이어진다. 임중빈은 <침몰해가는 한국적 주제>에서 김동리 황순원 선우휘 장용학에 대한 비판을 시도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1950년대 이어령이 행한 비평작업의 연장선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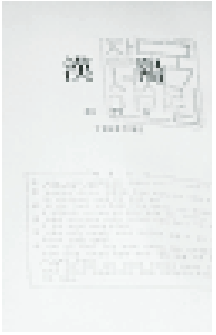


『청맥』 속표지

으로 보여진다. 그는 " 순수는 죽었다 "라고 말하면서 문학의 새로운 기운을 찾고자 한다. 그러한 행위를 일컬어 ' 운명의 방화(放火) '라고 말하는 걸로 보아서 ' 광란 이전의 준엄한 이반 '이 떠올려진다. 이런 비판의식은 서평란에서도 이어진다. 서평란에서는 「60년대 사화집」, 이어령의 「고독한 군중」, 송욱의 「시학평전」, 유종호의 「비순수의 선언」 등이 다루어지고 있는데, 비판의 논조가 성급하기는 앞의 ' 평단소송 '과 매한가지다. 이렇게 볼 때 이들 학생비평가들이 바라본 기성세대 혹은 순수문학의 지형을 대체로 그려볼 수 있다. 그들의 선입견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참여문학을 주창한 비평가들의 비판과 대상이 이 지형과 겹쳐지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앞서 살펴본 것은 『비평작업』에 나타난 세대론적 차별성이 그 중심에 놓여져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 신세대 비평가의 참여론이 다른 한 축으로 살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주섭일에 의해서 비평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는 <작가의 현실참여와 휴머니즘>에서 프랑스 전후문학의 특성을 실존주의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 있다. 그의 외국문학에 대한 관심은 한국의 문학과 접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고자 할 때 타겟을 김동리에 맞추고 있다. 주섭일은 김동리가 자신의 문학을 실존주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휴머니즘을 겨냥했다고 말하는 것은 외국, 특히 프랑스의 경우와 다르다는 것을 표나게 주장하면서 김동리의 문학세계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의 주체성을 살리는 문학은 작가의 현실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인간성에의 경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 그의 주장인 셈이다. 이와 함께 샤르트르의 글이 소개되어 있다. 실존주의 철학자이면서 문인이기도 한 그의 글 가운데 <실존주의와 맑스주의>는 「변증법적이성비판」의 일부분을 번역한 것이다. 유물론 철학의 소개가 자유롭지 못하던 당시에 사르트르를 통해서 현실 비판과 변혁에 대한 철학을 소개하려던 것은 이채로운 장면이다. 이 글에서 마르크스와 루카치의 저작에 대한 단편적인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르트르의 글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가장 난해하면서 급진적인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뒤미친 지식에 대한 갈증과 사회 변화에 대한 요구가 이렇게 나타난 것을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밖에 이광훈의 <이상 시어 연구론 시고>는 당시 이상에 대한 관심에서 첨가된 부분이라는 인상이 짙다.

그리고 일본의 소설가 마쓰모토 세이초(松本清張)의 「북의 시인」에 대한 짧은 글은 이념을 달리하여 월북한 비평가 임화에 대한 관심을 피력하고 있다. 한국의 기성세대가 자신과 함께 문학활동을 했으나 이제는 그들을 죽은 자식처럼 취급하는 태도를 비판하면서 간접적으로 카프계 문인에 대한 관심을 기



『한양』 창간호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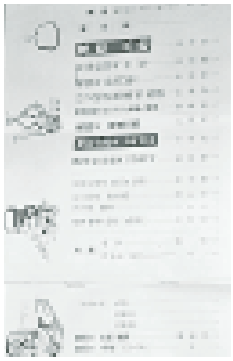
『청맥』은 김진환이 발행 겸 편집인을 맡고 김질락이 주간을 맡아 간행된 사상 교양 종합지였다. 4 · 19 이후 새로운 세대의 관심이 그들에게 기울어진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당연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문학관의 모색이 요청되었기 때문이다.

울여야 하지 않나 하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이들의 세대론과 참여론은 기성세대에 대한 비판을 통한 새로운 비평영역의 확보라는 입장과 함께 전후 불구가 된 문학의 전통 복원이라는 측면에서의 조심스러운 첫발이라고 할 수 있다.

2) 풍문 속의 『청맥』

『청맥』은 김진환이 발행 겸 편집인을 맡고 김질락이 주간을 맡아 간행된 사상 교양 종합지였다. 1967년 8월에 그 첫호가 간행되었다. 『비평작업』은 의욕적 자세를 보여주었지만 지속적인 비평 작업의 산실이 되지는 못했다. 이후에 그들은 개별적인 활동을 통해 자신의 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분투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가운데 『청맥』의 창간과 때를 같이하여 『비평작업』의 일부가 참여하게 된다. 특히 주섭일과 조동일의 글이 당시에 관심을 끌었던 듯한데, 이호철은 훗날 이 시절을 회고하면서 " 그들의 타겟은 이어령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더러더러 그들 논조를 보면서는 북에서 나온 나 같은 사람도 혼자 공포에 떨었다. 특히 조동일과 주섭일의 글이 그랬다. "(<이호철의 문단이야기>, 도서신문, 1998.6)라고 썼다. 주섭일은 <한국의 작가와 현실참여>(1965.6)라는 글을 실은 바 있는데 앞에서 살핀 『비평작업』의 연장선상에 놓여진 글이다. 특징이라면 프랑스 문학과의 비교를 통한 검토가 그의 주된 내용이라는 점이다.

조동일은 『비평작업』의 동인으로서 동인지에 <춤추는 의식>이라는 일종의 초현실적 기법의 시와 폴 엘뤼아르의 <평화의 얼굴>을 번역했지만 그의 비평적 관점을 찾기가 어려웠다. 그러다가 그는 이동극(李東克)이라는 필명으로 <한국적 리얼리즘 형성과정>(1964.11)이라는 글을 『청맥』에 발표한다. 이른바 문학사의 내재적 발전론의 효시가 되는 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는 조선시대 후기문학의 형성과 발전을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서술하고 있다. 얼개상으로


『한양』 창간호 목차

본다면 이러한 관점은 분단 이전의 사회경제사 연구와 유사한 측면이 있다. 4 · 19 이후 새로운 세대의 관심이 그들에게 기울어진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당연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분단 이전의 사회경제사 연구가 일제 식민지배의 원인을 찾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4 · 19 이후의 세대들에게는 분단이라는 현실 속에서 새로운 문학관의 모색이 요청된다.

이때 조동일은 <한국적 리얼리즘 형성과정> 이후에 <시인의식론>(1965.1 1966.3)을 발표한다. ' 시인의 사회적 위치에 관한 역사적 고찰 '이라는 부제를 달고서 11회에 걸쳐 발표된 이 글에서는 고대시가에서부터 근대시, 유행가까지 그 대상과 범위를 한국 시문학 전체로 확대시키고 있다. 분량 면에서도 웬만한 소책자 한 권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의 문학사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다. 그는 문학사의 시기를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로 나누었으며, 고대에서는 제관시인과 무당시인을, 중세에서는 귀족시인과 광대시인을 대립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또한 근대의 시인들은 개인의식을 갖고 있는 시인들인데, 이들은 이광수와 최남선 이래로 계몽시인, 비관시인, 자연시인, 파멸시인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전개되었다고 보았다. 비관시인이 1920년대의 시인을 지칭한다면, 자연시인은 청록파와 서정주가 포함되며, 파멸시인은 이른바 모더니스트 시인 전체가 포함된다. 당시의 문단과 문학론에 대한 비판은 있었지만 문학사(시사) 전체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 글이 갖고 있는 폭발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시인의식론>은 고대, 중세, 근대라는 역사의 합법칙적인 발전 속에서 지배층에 봉사하는 시인과 피지배층의 정서와 사상을 대변하는 시인으로 나뉘어진다는 구도로 구성되어 있다. 아마도 근대시인은 소시민적 지식인이라는 ' 출신기반 ' 때문에 그들의 문학세계가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는 평가와 표현들 때문에 이호철같이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을 갖고 있었던 작가들조차 어리둥절해 하면서 " 공포에 떨었다 "라고 말했던 것 같다.

조동일에 의하면 " 시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존재하고, 시에 나타나는 것은 사회적 관계에 의해 축적된 의식의 예술적 표현일 뿐이다. "라고 말한다. 더 나아가 " 예술적 표현이라는 것도 초월적이거나 선험적인 의미를 가진 미적 범주가 아니고, 오히려 표현해야 할 대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 이러한 관점은 이제는 오래된 축음기에서 나오는 소리처럼 들리지만, 이러한 관점이 전 시대의 모든 관점을 혁파할 수 있는 하나의 준거가 된다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도 <시인의식론>을 풍문으로만 듣고 제대로 살필 수 없었던 이유라고 해야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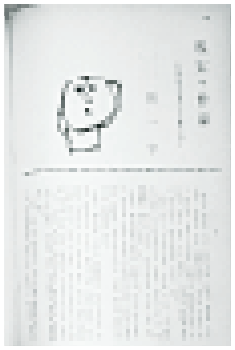
『한양』 창간호 창간사

『한양』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일본문화와의 관련성을 모색한 글이 다수 실려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상황은 남의 일처럼 보아 넘길 수도 없으려니와 정상적인 정치가 구현되지 않는 등의 조짐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하여 발언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지배층에 봉사하는 시인들과 구분되는 무당시인과 광대시인의 면면을 찾아낸 것은 <시인의식론>의 성과이지만 원래 이 글의 절반은 근대시의 전개과정과 개별 시인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특히 4 · 19와 근대시인의 관계를 설정한 부분에서, 그의 문학을 바라보는 관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더니즘 시인의 시에 대하여 ' 시의 신비화를 언어의 신비화로서 완성 하려는 태도라고 비판하는 대목은 지금 보아도 놀라운 감식안인데 그 시선이 바라보는 곳은 ' 또 다른 자연 '에 가 있다. 그 자연은 " 농사의 터전, 싸움의 터전, 또는 역사의 터전 "이다. 그리하여 그가 비판한 대부분의 현대시인들 가운데에서도 박두진과 김수영에게 만큼은 시인으로서의 정당한 대우를 아끼지 않는다. 또한 모더니즘 시인들에게, 그의 구분에 의하면 ' 파멸시인 ' 들에게 그는 ' 파멸이냐 극복이냐 '라는 주문을 내어놓는다. 이 대목에서 이후에 김지하가 김수영의 <귀거래사>에 대하여 ' 풍자냐 자살이냐 '라고 비판했던 장면과 겹쳐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지금까지 조동일의 생각들이 김지하의 <오적>과 같은 작품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평가되어 왔으나 조동일과 김지하의 생각은 <시인정신론>과 <풍자냐 자살이냐>(『시인』, 1970.7)에서도 정확히 일치된다. 그 차이를 굳이 말한다면 조동일의 새로운 문명에 대한 탐색은 현재에서 과거로의 투사로 나타났으며, 김지하의 그것은 미래에서 현재로의 투사 정도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근대시인의 대립항으로서 민중시인의 출현은 무당시인과 광대시인의 계보를 잇는 것이며, 그 민중의 형식은 민중시인의 내용인 것이다.

그밖에도 『청맥』에서는 구중서의 <서정주와 현실도피>(1965.6)와 <소설가 이어령의 도로>(1966.7), 백낙청의 <궁핍한 시대와 문학정신>(1965.6)과 같은 평론을 발견할 수 있다. 소설로는 남정현의 <혁명후기>(1964.12), 이호철의 <서빙고역전 풍경>(1965.5)과 <생일초대>(1965.8), 김승옥의 <들놀이>(1965.7), 강호무의 <동판화 환멸>(1965.6), 강용준의 <봄비와 더불어>(1965.6), 이청준의 <바닷가 사람들>(1966.9) 등이 보인다. 또한 서정주의 장남인 서승해의 <선



『한양』 장일우의 글

티멘털리스트>(1965.12)가 실려있다는 점도 주목할만 하다. 시로서는 황명걸의 <한국의 아이>(1965.6)가 발표되기도 했다

3) 일본에서 간행된 『한양』

『한양』에 대한 소개는 ' 재일교포의 유일한 월간 종합교양지 '라는 광고문구에 그 특징이 집약되어 있다. 이 잡지가 일본에서 간행된 일차적인 배경에는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대학원을 나온 지식인들이 많이 배출되었는데 이들의 진로가 마땅치 않은 데 있었다. 이들이 연구를 해도 마땅한 발표매체가 없자 그들의 연구 성과와 생각을 발표할 잡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한양』의 창간 배경이었다. 그리고 해외에 거주하는 그들에게는 본국과의 문화적인 유대와 교류가 그들의 정체성을 찾는데 중요한 관건이기도 했다.

따라서 『한양』에서는 한국의 문화를 소개하고, 일본문화와의 관련성을 모색한 글이 다수 실려 있다. 그런데 한국의 정치상황은 남의 일처럼 보아 넘길 수도 없으려니와 정상적인 정치가 구현되지 않는 등의 조짐이 확산되었다. 그래서 한국의 정치 현실에 대하여 발언의 기회를 갖기도 했다. 특히 편집 겸 발행인이었던 김인재는 실제 필진으로 참가하여 글을 여러 편 남기고 있다.

실제로 이 글에서 『한양』을 다루는 것은 한국의 문학적 상황, 이를테면 1960년대 순수 · 참여 논쟁에 『한양』이 일정한 기여를 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양』의 성격을 들라면 우선 순수문학보다는 참여문학적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때 주요 필진으로는 장일우와 김순남을 들 수 있다. 장일우와 김순남은 『한양』의 창간(1962.3)부터 글을 발표하여 장일우는 20여편, 김순남은 40여편의 왕성한 필력을 발휘한다. 특히 1965년 경까지는 2, 3달에 한번씩 번갈아 글을 발표하면서 『한양』의 고정 필자처럼 활동을 하는데, 왕성한 활동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글은 한국의 문예지인 『현대문학』『자유문학』『문학춘추』 등에 한두 편씩 발표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의 주된 활동무대는 『한양』일 수밖에 없었다. 그밖에 재일교포의 필진으로서는 하상두 윤동호 이우종 김성일 등이 참가하였으나 장일우나 김순남의 성과에 비하면 한두 편에 그치는 미미한 것이다.

먼저 장일우에 대해서는 김수영의 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김수영은 『한양』에 <생활현실과 시>(1964.10)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장일우의 글을 비판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김수영에 의하면 장일우의 글들은 " 우리 시는 우리의 생활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소리를 하고 있다. "는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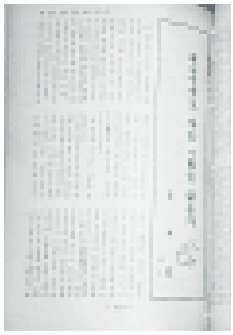
『한양』 5월호

1960년대의 순수 · 참여 논쟁은 문학작품의 구체성에 대한 검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역사의 대의와 문학론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세대론적 혹은 진영 사이의 설익고 관념적인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다.

고 말하고 있다. 또한 김수영은 장일우의 문학을 대하는 태도가 ' 시의 본질 보다도 시의 사회적인 공리성에 더 강조 '를 하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김수영이 보기에 장일우의 지사적인 발언은 시의 기술적인 면에 대한 고려가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에 난해시는 생활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가치한 시라는 것으로 취급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서 김수영은 다음과 같이 장일우에게 애정어린 충고를 한다. " 비평가의 임무는 전자의 경향의 시인에게 후자의 경향을 강매하거나 후자의 경향의 시인에게 전자의 경향을 강매하는 일보다도 오히려, 제각기 가진 경향 속에서 그 시인의 양심이 살려져 있는지 아닌지를 식별하는 일에 있는 것이라고 믿어진다. " 이것은 인간의 회복으로 이어지는데 이어서 이것이 시의 바른 길이다라고 예의 김수영의 생각이 이어진다.

김수영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글은 장일우의 <현대시와 시인>(『한양』, 1963.4), <한국현대시의 반성>(『한양』, 1963.9) 등인 것으로 보인다. 장일우는 시의 난해성을 ' 시인들이 시대의 요구를 자기의 주관의식으로 칼카츄어화해 버리거나 혹은 묵살해버리고 시를 한갓 작희(作戱)로 알고 덮어놓고 덤벼드는 결과에서 조성된 것 '이라고 과단성 있는 해석을 내린다. 때문에 시는 시대의 요구를 받들어 감동의 매체로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국현대시의 반성>에서는 전후 한국 현대시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으로 이어진다. 여기에서 그는 청록파 시인들과 서정주, 그리고 모더니즘에 포함되는 시인들 일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 언뜻 보면 조동일이 <시인의식론>에서 행한 비판의 구도와 거의 일치한다. 박두진의 시에 대한 공감까지도 유사한데, 바다 건너에 있지만 1960년대 한국의 현실에 대한 깊은 관심의 결과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동일은 <전통의 퇴화와 계승의 향방>(『창작과 비평』, 1966, 여름호)에서 민족적 근대문학의 직접적인 원천으로 두 가지를 들고 있다. 하나는 중세평민문학의 전통이고, 다른 하나는 식민지적 근대문학의 일부로서 민족적 입장을



『한양』 김수영의 글

견지한 작품이 그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조동일은 이후에 중세평민문학의 전통을 새로운 문명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열쇠로 보고 이에 대한 연구에 심혈을 기울인다. 반면에 장일우는 민족적 입장을 견지한 작품, 이를테면 민족적 주체성을 확보한 작품에 큰 관심을 보인다. 여기에는 김소월과 이상화와 같은 시인들이 포함된다. 장일우의 문학관은 다분히 시적인데 그 시의 원천을 민족적인 것에서 찾고 있다. 당연히 그에게는 문학의 전통은 민족의 주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것이다. 따라서 문학의 주체성 결여와 민족적 전통의 황폐화에 맞서 민족적 주체성의 복원을 추구하는 비평을 행하게 된다. 그에게 있어 민족적 주체성의 복원은 전통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물론 후세의 평가처럼 1960년대의 순수 · 참여 논쟁은 문학작품의 구체성에 대한 검토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기 보다는 세대론적 혹은 진영 사이의 설익고 관념적인 비판이 주를 이루었다. 참여문학을 주장했던 이들에게도, 역사의 대의와 문학론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장일우에게서 나타나는 원론적인 문예이론관은 순수와 참여문학 양자의 결합을 승화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양』에는 참여론을 주장했던 국내 다수의 평론가들이 참가하여 다채로운 비평의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구중서 김우종 신동한 장백일 정태용 임중빈 임헌영 홍사중 등이 그들이다. 장백일은 <동인지와 그 비평-신인문학운동의 문제점>(『한양』, 1963.12)에서 비평동인지 『비평작업』에 상당한 관심과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며, 이렇게 확인된 친연성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참여론을 주장한 다수의 신진 평론가들의 글이 『한양』에 실리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 없이는 순수 참여론의 정확한 지형을 그리기가 불가능할 터인데 『한양』에 대한 언급은 많은 문학연구서와 문학사에서 단출하고 편리하게 인용되어질 뿐이다. 필자 자신도 장일우와 김순남의 간단한 약력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이 글을 쓰고 있다. 또한 이들의 활동이 1960년대를 마감하면서 벌어진 일련의 평가에서도 생략된 채 넘어간다. 그 이후는 말할 것도 없다. 하지만 이후의 문학사가 순수 · 참여론의 다양한 변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주위에서 이러한 참여론의 실천적인 모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이 이들의 글들을 먼지 낀 도서관에서 애써 찾는 이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김순남이 있다. 장일우가 소월에게서 민족적 정신과 주체성을 확인하려 했다면, 김순남의 출발은 다소 원론적이고 관념적인 용어의 나열이었다. 그래서 불안한 모습이 쉽게 가시지 않는다. 그를 참여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장일우의 논조와 유사함이 발견되고, 이 때문에 그의 문학관은 다분히 아류적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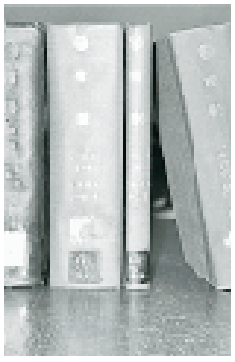
『한양』

1960년대 비평의 가장 큰 쟁점은 순수 · 참여 논쟁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복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계로 나아간 주섭일의 경우가 그러하며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양』의 장일우나 김순남은 지금도 본격적인 평가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것으로 비쳐지기도 한다. 장일우의 글들이 1965년을 전후로 하여 『한양』에서 잘 보이지 않고, 청록파 시인들의 시집인 「청록집 기타」(현암사, 1968)에 실린 <박두진론> 이후에는 더 이상 그의 글을 찾아볼 수 없는데 반하여, 100호 이상을 내고 1971년 경 마감하는 『한양』을 끝까지 지키고 있는 이는 김순남이다. 그는 <니힐과 진실>(『한양』, 1963.5)에서 인생의 진실은 허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체성의 회복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김소운과 민병산의 글에 대한 그의 비평문인데 여기에서는 재일교포의 자의식이 엿보이고 있다. 한국어를 쓰면서도 한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활자체와 일본식 한자를 섞어서 조판하고, 일본의 동경에서 만든 잡지 『한양』에는 재일교포의 자의식이 곁들어야 한다고 믿었을까? 아무튼 김순남의 글에는 학구적인 실증과 정밀한 논증을 바탕으로 민족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깃들여 있으나, 지금 여기는 일본이라는 현실에 대해서도 남다른 자의식을 보여준 비평가로 기억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문학사에서 잊혀진 사람들

어느 문학사가는 1955년 세대와 1965년 세대의 비평가를 구분하고 있다. 두 시기의 차이성과 연계성은 1950년대와 1960년의 시기적 구분을 의미함은 물론 이후의 문학사 전개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1960년대 비평의 가장 큰 쟁점은 순수 · 참여 논쟁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복원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것은 우선 문학제도적인 측면이 있는데 ' 등단제도 '가 그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신세대비평가들의 글들은 1963년경부터 1965년까지 극성을 부리다가 1966년 이후 침잠과 조정의 국면으로 들어가는 듯하다. 1965년을 전후하여 방식이야 어떻든 이른바 문단에 등단한 이들은 이후에 평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은 이들은 논외로 처리되었다. 언론계로 나아간 주섭일의 경우가 그러하며 등단 이전의 작품은 습작품으로 받아



『청맥』과 『한양』(국립도서관 소장)

들여졌다. 때문에 공식적인 등단 이전의 글에 대해서는 고려가 되지 않았다. 하물며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양』의 장일우나 김순남은 지금도 본격적인 평가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또한 1960년대 초반 활발한 활동을 벌였던 신세대 비평가들이 1966년 이후 침잠했던 사정에는 문학외적인 현상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4 · 19 이후 5 · 16과 한일회담 등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격동과도 연결이 될 듯한데 참여문학의 고양과 정치적 탄압의 맞대결은 불가피하게 신세대 비평가들을 순치하는 역할도 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혁명당 사건을 통해서 『청맥』을 간행하던 김진환과 김질락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예는 지식인과 문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으로 비쳐졌을 것이다. 이후의 폭압의 역사는 이러한 정치적 마수에 걸려들지 않으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백낙청은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창작과 비평』, 1966, 창간호)에서 " 작가와 비평가가 힘을 모으고 문학인과 여타 지식인들의 지혜를 나누며 대다수 민중의 가장 깊은 염원과 소수 엘리트의 가장 높은 기대에 보답하는 동시에 세계문학과 한국문학과의 통로를 이룩하고 동양 역사의 효과적 갱생을 준비하는 작업이 이 땅의 어느 한구석에서나마 진행되어야 하겠다. "라고 썼다. 특히 ' 이 땅의 어느 한구석에서나마 ' 라는 표현은 내리쬐는 폭염을 피할 서늘한 그늘이 필요하다라는 것의 역설적 표현은 아니었을까?